

이슈브리프 843호
(2026. 5.18)

2026 안동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전망과 의의

제843호

김숙현 po10901@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5월 19~20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최근 한일 관계의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한 단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은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을 가진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다. 특히 지난 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나라(奈良)에서 열렸고, 이번 회담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상호 신뢰를 부각하는 서틀 외교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동 정상회담은 외형상으로는 정상 간 친교와 신뢰 형성이 강조되는 회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과 공급망 안정,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국민 보호 등 실용적 의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관계 변화, 중동 정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모두 첨단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이자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 협력은 더 이상 선택적 협력 분야가 아니라 공동 대응이 필요한 핵심 의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일 서틀 외교의 복원과 정착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제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기반을 넓히는 회담으로 볼 수 있다. 5월 14~15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지역 정세도 논의하겠지만,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제 정세 변화가 한일 양국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공동 대응, 관리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안동 한일 정상회담, 서틀 외교, 한일협력, 미중 정상회담, 북핵문제

안동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과 제도화 확립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셔틀 외교의 지속성이다.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일 관계는 구조적으로 협력 필요성이 높지만, 정치적·역사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협력 기반을 약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정상 간 정례적 소통은 양국 간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

안동 정상회담은 장소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이나 도쿄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출생지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정치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1월 나라 회담과 이번 안동 회담이 서로 맞물리면서, 양국 정상은 상대방의 정치적·상징적 공간을 방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일 관계가 단순히 외교당국 간 협의에 머무르지 않고, 정상 간 직접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해 관리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셔틀 외교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경제, 안보, 공급망, 재외국민 보호,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나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협력은 신중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상 간 지속적 소통은 이러한 민감성을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실질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이 된다.

일본 입장에서든 셔틀외교의 지속은 한국을 안정적 협력 파트너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은 북한 문제, 중국 변수, 경제 안보 리스크, 에너지 공급 불안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안정은 일본의 지역 전략과 경제 안보 정책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일 경제협력의 확대와 실질화 논의 예상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실질 의제는 경제협력이 될 듯하다. 한일 양국은 모두 첨단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AI,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한다. 과거 한일 경제 관계는 상호 보완성이 컸지만, 최근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쟁 요소도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경제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전략산업과 공급망 안정, 기술협력, 공동 시장 대응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소재·부품·장비, 정밀 기술, 첨단소재, 제조 인프라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도 많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각자 산업정책과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의 방향을 단순한 교역 확대에서 전략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 첨단소재 협력, AI 및 디지털 기술 협력, 탄소중립 산업 전환, 스타트업 및 미래산업 교류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제협력의 또 다른 축은 민생과 연결되는 분야다. 관광, 청년교류, 지방 간 교류, 문화콘텐츠, 고령화 대응, 의료·돌봄 산업, 지역경제 협력 등은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양국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분야다. 안동 회담이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역 간 교류와 지방 경제 활성화도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협력은 국내 여론과 역사 문제로 인해 표현 수위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경제협력은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안에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협력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협력의 제도화 여부에 주목

이번 회담에서 가장 전략적 의미가 큰 분야는 공급망 협력이다. 공급망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희토류, 에너지, 첨단소재, 의약품, 데이터 인프라 등은 모두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기술적 자립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다.

미중 전략경쟁, 기술 통제, 수출규제, 지정학적 갈등, 중동 정세 불안, 해상교통로 리스크는 모두 공급망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시적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첨단기술과 핵심 자원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미중 관계의 단기적 흐름보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장기 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 공급망 협력의 핵심은 상호 보완성에 있다. 일본은 정밀화학, 첨단소재, 제조 장비, 산업 기초 기술에서 강점이 있고, 한국은 반도체 양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제조 스케일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양국이 이러한 강점을 결합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소재·장비·핵심 광물·제조 역량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핵심 광물 공동 확보, 제3국 공급망 협력, 첨단산업 표준 협력, 경제 안보 당국 간 정례 협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특히 핵심 광물과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한일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동 정세나 해상교통로 불안이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급망 협력은 에너지 안보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경제안보 협력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이번 안동 회담의 핵심 성과는 공급망 협력의 제도화 여부에서 확인될 수 있다. 단순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협의체, 정보 공유 시스템, 핵심 품목 관리, 민관 협력 구조, 공동 위기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지가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와 중동 정세 공동 대응 논의 가능성 고조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정세와 에너지 안보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동산 원유와 해상수송로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란 정세, 호르무즈 해협 불안, 국제유가 변동은 양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동 정세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경제 안보와 민생안보의 핵심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공급망 협력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전략적 의제다. 원유와 LNG 수급, 해상교통로 안정, 전략비축, 에너지 가격 변동,

재생에너지 및 수소 협력 등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운용, 해상수송 안전, 기업 활동 보호, 재외국민 대피 협력 등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구조와 산업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비슷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협력의 필요성을 높인다. 에너지 안보 협력은 양국 국민에게도 직접적으로 설명 가능한 의제다. 원유 가격과 물가, 산업 생산, 전기요금, 물류비용은 모두 국민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안정과 중동 정세 대응이 논의된다면, 이는 한일 협력의 민생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일 안보협력 의제 관련 제한적·실용적 접근 필요

이번 회담에서 안보 의제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동북아 정세, 한미일 협력, 미중 관계 변화는 한일 정상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안보 현안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납치자 문제를 중시하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직접 당사자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메시지에서는 군사협력 강화보다 “지역 평화와 안정”, “북한을 포함한 지역정세”, “국제사회와의 공조” 정도의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정상회담 역시 이번 회담의 배경 변수로 다뤄질 수 있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외교·경제·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안동 회담의 핵심을 미중관계 자체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 변화가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일 양국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은 보고서에서 “배경적 요인”으로 처리하고, 그 파급효과를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측 입장에서도 현실적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국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경제협력과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국민 보호는 실용적 국익으로 설명하기 쉽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안보협력의 직접적 확대보다는 경제안보와 민생협력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일 간 실용적 협력 제도화의 중요 분기점

이번 안동 한일 정상 회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서틀 외교를 정례화하고 한일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다. 둘째, 경제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이다. 셋째, 안보 의제를 직접적 군사협력보다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국민 보호, 지역 안정의 틀 속에서 다루는 복합 안보 회담이다.

향후 평가는 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공급망 협의체, 핵심 광물 협력, 경제 안보 당국 간 정례 협의, 에너지 위기 대응 채널, 기업 간 협력 플랫폼, 지방·청년·문화 교류 확대가 구체화된다면 안동 회담은 한일관계의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상징적 친교와 포괄적 합의에 그친다면 서틀 외교의 외형은 유지되더라도 협력의 실질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은 중요한 배경 변수로 볼 수 있으나, 이번 회담의 핵심은 한일 양국이 그 변화 속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안동 회담은 한일 관계의 분위기 개선을 넘어, 복합 위기 시대에 양국이 실용적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